

[ 사 회 ]

모이면접 실전 방불 긴장감

고교생부터 60대까지 "채용정보 하나라도 더 얻자"

■ 전남대서 열린 '2006 잡 페스티벌' 가 보니

청년층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된 취업박람회에 일자리를 찾는 고교생부터 60대 노인들까지 몰려 심각한 취업난을 여실히 보여줬다.
광주시와 광주지방노동청 등이 8일 전남대 체육관에서 개최한 '2006 잡 페스티벌(Job Festival)'...

에서 실전과 닮았지만 면접을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꼼꼼히 매도했다.
경연대회도 성황을 이뤘다. 구직자들은 ▲취업관련 문제를 푸는 '취업글 등본'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찾는 '취업정보사냥대회'...

몰려 연봉 등 기업들이 내건 조건을 세밀하게 체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참가가 거의 없었으며, 참가 기업의 제시 연봉이 너무 낮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또 현장 모집보다는 온라인 접수자가 많은 것이 페스티벌의 효과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기업들 역시 구직자들은 많지만 원하는 인재가 없다고 토로해, 기업과 구직자 간 시간 차가 여전히 문제로 나타났다. 김모(18·광양 고 3)...



서울대 가서 처지기보다 다른 곳서 능력 발휘하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초등생 논술교육 불필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경제학부 교수·사진)은 "초등학교 때부터 논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고 어릴 때는 책을 마음껏 읽고 자유롭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 강남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정 총장은 전남 강남초교 초청으로 '한국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동안 서울대 논술 채점은 7번 해봤지만 기본 점수를 감안하면 접수 차는 2~3점에 불과했다"며 굳이 학원...

수능 광주·전남 33,966명 응시

오는 16일 치러질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3만3천966명이 응시한다.
8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는 광주 1만8천211명, 전남 1만5천755명 등 모두 3만3천9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광주는 639명, 전남은 756명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시험은 광주 30개교(시합실 705개), 전남 43개교(시합실 639개) 등 총 73개교(시합실 1천344개)에서 치러지며, 감독관은 광주 2천844명, 전남 2천914명 등 총 5천758명이 동원된다.
수험생 예비소집 및 수험료 교부는 오는 15일 재학생 및 재수생은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타시도 졸업생 등은 광주의 경우 화성중에서, 전남은 목포·나주·순천·여수·해남·담양고 등에서 이뤄진다.
/황태준기자 hwangtae@kwangju.co.kr

겨울 부르는 '빗방울' 11월 9일 (음 9월 19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벗어날수록 구름이 많아지겠다.
<전국날씨>

Weather forecast table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Includes a table for 10-day forecasts and specific weather icons for different provinces.

민노총 광주·전남 조직 분리키로

민노총 광주·전남 조직분리 추진
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정의상·이하 민노총광)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로 분리되고, 본부장은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선출된다.
민노총광은 지난 7일 광주시 관산구 쌍암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고 '민노총광 광주·전남 조직 분리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자동차 '짜짜이 변호관' 혼란 왜?

건교부 "붕괴때문에 방법 없어"
11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새 자동차 번호판을 둘러싼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새 번호판 교부기 시작한 이후 광주·전남 지자체 민원 창구에는 차량의 후면에 도 가로로 긴 모양의 유립식 신형 번호판을 달도록 해 달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앞 번호판을 기다란 신형 번호판을 달도록 하면서도 후면 번호판은 10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 달은 번호판만 달도록 하겠다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동차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붕괴...



"좁은 문 꼭 뚫고 말거야" '2006 Job Festival'에 참가한 20대 구직자 2명이 불온으로 기업들의 구인공고를 밀줄 처 거머 꼼꼼히 보고 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2천여 명이 넘는 구직자가 몰려 심각한 취업난을 여실히 보여줬다.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국공립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공립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내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 어린이집 137곳과 기존 어린이집 100곳 등 총 237곳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등 공동주택 보육시설이 점차 국공립으로 바뀐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공립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시설은 운영...

자녀 입주자대표회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력에 의해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노총 광주·전남 조직분리 추진
민노총광은 지난 7일 광주시 관산구 쌍암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고 '민노총광 광주·전남 조직 분리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민노총 조직 분리되면

특히 본부가 광주에 있어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과 대불산단(영암)이 있는 전남 서부권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기반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
전남본부 신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운동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노총광의 예상이다. 또 파업 등 노동계의 투쟁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남본부는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여수·순천·광양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시 의료안내
A large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s in Gwangju, listing various hospitals and clinics with their specialti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list of departments like internal medicine, surgery, pediatrics, and obstetrics/gynecology.